

文學에 잇서서 倫理와 論理 (4)

金午星

文學은 어떤 規範을 認識하거나 論證하는 것이 아니고 現實을 主로 하는 人間行爲의 現實을 描寫하며 人間의 可能한 行爲를 創造하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今日의 文學이 從來의 理性主義에 反抗하여 파토스의 倫理, 즉 主觀的 倫理를 맞어드리는 것은 文學 自體의 發展을 爲하여 正當한 일일 것이다. 더욱이 文學은 過去에 잇서 너무도 理性과 論理의 重壓 밑에서 呻吟했다. 勸善懲惡의 날근 倫理文學이 理性의 規範인 德, 不德 등을 가지고 人間타입을 強制로 갈나노흔 동안에 文學은 그 薰陶와 香氣를 奪去했스며 近來의 푸로文學이 論理의 過剩으로 文學의 形象을 喪失케 하였든 것이다. 理性主義는 너무도 客觀的 眞理에만 汲汲하여 倫理的 主體인 人間을 疎外했스며 人間을 客觀的 事象 속에 解消시켰든 것이다. 여기서 人間을 主體的으로 把握하려는 倫理問題가 擡頭됨은 文學의 自己發展을 爲하여 극히 當然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今日의 文學은 이러한 倫理的인 것을 맞어드리기 爲하여는 論理的인 것을 追放하지 안으면 안될 것인가? 우리는 우에서 論理에 立脚한 理性主義의 倫理가 오히려 行爲하며 生産하는 人間을 束縛하는 非倫理的임을 보아왔다. 그러나 그것은 理性이나 論理의 罪가 아니고 일은마 『理性主義』 또는 『論理主義』의 罪라 할 것이다. 우리는 理性, 論理가 업시 事理를 判斷하거나 自己를 表現할 길이 업다. 文學은 單히 外部를 描寫하는 것이 아니고 自己를 表現하는 것이라 한다. 自己를 表現하는 것, 그것은 確實히 로고스가 아니고 파토스이며 論理的이 아니고 倫理的이다. 그러나 이 倫理的인 것의 表現은 먼저 말을 통해서만 可能하다. 文學은 言語가 업시는 形成되지 못한다. 言語는 로고스(理性)이다. 言語가 文學을 形成하려면 文字가 업시는 안되며, 文字는 論理가 업시는 文學을 組織할 수 업는 것이다. 그러므로 文學은 어떤 概念化된 論理의 內容은 拒否한다 할지라도 文學 自體를 形成하는 論理的인 것을 拒否할 수는 업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今日 文學에서 要求되는 그 일은마 主體的 倫理의 危險性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로고스는 언제나 對象을 向하는 意識이다. 그러므로 로고스는 그 思考가 노파 갈수록[갈수록]

客觀的 對象을 鮮明하게 가진다. 그러나 파토스는 內面的 意識이다. 對象을 把握하려는 것이 아니고 自己를 形成하며 表現하려는 意識이다.

그러므로 파토스는 깊혀 갈수록 對象性이 업서진다. 無對象에의 深化! 그리하여 파토스는 『無』에 到達한다. 그러므로 主體的 倫理는 『無』를 地盤으로 하고 있다. 니-체는 無를 『빛나는 별을 나흘 混沌이라 했고, 게르게-꼴[키에 르케고르]은 『死에의 病』이라 했고, 하이데-겔[하이데거]은 現存在의 有限性, 야스벨스[야스퍼스]는 實存의 限界狀況이라 했다. 그들에게 依하면 無는 그것이 終局이 아니고 거기서 새로 出發하려는 새로운 倫理의 地盤이란 것이다. 세스롭의 말을 빌면 『虛無로부터의 創造』 이것이 主體的 倫理의 眼目인 것이다.